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학치료의 대중적 인지도 분석 - 국문학과 통계학의 융합적 측면

최경호\*, 박정혜\*\*  
전주대학교 기초의과학과\*, 경북대학교 문학치료학과\*\*

## The Analysis of Public Awareness about Literary Therapy by Utilizing Big Data Analysis - The aspects of convergence literature and statistics

Kyoung-Ho Choi\*, Jeong-Hye Park\*\*  
Dept. of Basic Medical(Statistics), Jeonju University\*  
Dept. of Literary Therap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문학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고찰하는 것으로 문학치료의 객관적인 인지도를 탐색하였다. '문학치료'에 대한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자료에 대해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한 의미정보 도출을 목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된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문학치료와 관계된 키워드의 내용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문학치료'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면서, '독서치료'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조사 기간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30일 동안 블로그와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자료를 검색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에 따라 문학치료 지평의 확산과 문학치료 지형의 구조적 조화, 문학치료 인식의 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학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를 탐색하고 이에 관련한 문학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문학치료, 독서치료, 심상 시치료, 문학치료의 빅데이터 분석, 학제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exploring objective awareness of literary therapy by consideration of popular perception about literary therapy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deduction of meaning information through analysis in the viewpoint of big data at online social network service(SNS) about 'literary therapy'. Accordingly, the main way of research became content analysis of keyword linked to literary therapy by utilizing opinion mining method related to text mining. The study mainly grasped 'literary therapy' and analyzed 'bibliotherapy' comparatively. The period of study was from Oct. 10th to Nov. 10th, 2014(during 30 days), and SNS such as blog or twitter became the subject of search. Through the result of study analysis, the conclusion that the spread of literary therapeutic prospect, structural harmony of literary therapeutic field, and the solidity of perceptual axis about literary therapy are needed can be drawn. This study is worthwhile because it can investigate popular awareness about literary therapy and can suggest alternative for invigoration of literary therapy.

**Key Words** : Literary therapy, Bibliotherapy, Simsang-Poetry Therapy, The analysis of big data about literary therapy, Interdisciplinary study

Received 15 January 2015, Revised 18 March 2015  
Accepted 20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Jeong-Hye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duadnjs2005@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모든 일에는 실마리가 중요하다. 시작을 위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실마리를 영어식으로 쓰면 ‘키워드(Key word)’이다. 키워드는 어떤 문장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말을 뜻한다. 전산에서 이 말은 데이터를 검색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를 뜻할 때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치료는 1986년 첫 논문[1]이 발표된 이래 이론 연구, 작품연구, 교육 및 임상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치료적인 임상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치료’는 독서치료, 저널치료, 글쓰기치료, 시치료, 통합문학치료, 심상 시치료 등의 여러 말로 범용해서 쓰고 있다.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도 혼용되거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즉, 저널치료는 그날그날의 고통스러운 체험 뿐 아니라 글쓰이의 내면에 자리 잡은 무의식적 상처들을 주요 소재로 한다는 면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글쓰기’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일기 쓰기’라고 정의하고 있다[2]. 또한, 글쓰기치료는 묘사적 글쓰기와 달리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표출하기 위한 ‘표현적 글쓰기’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3]으로써 저널치료와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저널과 글쓰기치료를 한데 엮어서 ‘쓰기’ 위주로 접근한 치료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치료는 총체적인 언어 수행으로 인간 내면의 억압되거나 상실된 것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게 해 주면서 언어를 통한 자아 발견과 통찰의 공간에 위치해서 자아와 세계 간의 인식으로 자신의 기억을 찾게 하고, 언어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한다[4]. 한편, 독서치료는 ‘인성을 측정하고 적용하며 성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심리학의 분야로, 독자의 인성과 문학작품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5]’이며 임상적으로 적용할 때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와 ‘시치료’는 본질적으로 동의어[6]라 볼 수 있다. 또한, 독서치료를 종합적인 의미에서 볼 때, 참여자가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매개로 하여 치료자와 일대일이나 집단으로 토론,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의 구체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적응과 성장 및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7]. 통합문학치료는 몸속의 치유력을 복원시키는 것으로 문학 속에서 문학적 치유력

을 스스로 찾아내거나 참여자들 간에 공감을 통해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의 오감을 통한 상호 매체적 접근을 중요한 역할로 두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8]고 보고 있다. 이처럼 ‘문학치료’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련을 두고 독서치료, 저널치료, 글쓰기 치료, 시치료, 통합문학치료 등으로 이름 붙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연관된 용어들을 총체적으로 ‘문학치료’라는 범주로 묶어서 접근하고자 한다.

문학치료는 일반적으로 독서치료와 쓰기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9], 문학치료의 영역 안에서 매체 사용에 따라 독서, 시/쓰기, 이야기, 드라마, 영화 같은 문학의 장르로 나눌 수 있다[10]. 글쓰기의 중요성으로 초점을 맞춰서 각 문학과 관련된 장르를 매체로 활용하는 점으로 본다면, 앞서 저널치료와 글쓰기치료가 한데 묶어질 수 있겠다. 상호작용하는 언어표현의 중요성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통합문학치료와 독서치료, 시치료는 함께 묶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심상 시치료는 인간의 정신 활동과 고유한 오감에 초감각, 지각을 아울러서 감성으로 내면의 힘을 일궈내서 궁극적으로 온전한 마음과 영혼의 치료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11]. 따라서 심상 시치료는 보다 포괄적이고 융합된 개념으로 그림, 음악, 영화, 시, 기타 활동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쓰기뿐만 아니라 표현에서의 통합을 꾀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문학치료와 변별성을 띠고 있다. 심상 시치료(Simsang-Poetry Therapy)의 영역은 매체활용적인 면, 활동적인 면, 표현방법의 면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체활용적인 면에서는 그림, 음악, 영화, 시, 기타 활동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활동적인 면에서는 활동성에 따라서 정적, 동적영역으로 나뉜다. 표현방법에 따라서는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담자의 표현은 글쓰기나 말하기로 할 수도 있지만, 그림 그리기나 동작과 특정한 언어가 아닌 소리로도 표현할 수도 있다. 주로 언어적 측면의 표현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치료 분위기와 내담자의 상황이나 무의식을 두드러기 위한 목적으로 비언어적 측면을 권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심상 시치료에서 심상(Simsang)은 인간의 정신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초감각, 지각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말한다. 또한 시(Poetry)는 시가 곧 삶이고, 삶은 곧 문화와 예술의 아우라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치료적 의미를 추출하여 치료

로 활성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심상 시치료는 문학치료의 범주에 속하면서, 기존의 개념을 적용한 문학치료로만 묶어둘 수 없는 부분까지 확장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면에서 심상 시치료는 따로 다룰 수밖에 없고, 맺음말 부분에서 향후 다시 언급하겠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 모든 특징과 구분에도 불구하고 '문학치료'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문학의 예술성이 치유라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치료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문학치료는 문학의 치유성에 뿌리에 두고 치료하는 심리·정신 치료를 일컫는다. 여기서 '문학'이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상상에 따라 표현하는 예술로 정의할 수 있다. 주로 문자에 의해서이지만, 말로 전승하는 구비문학도 포함하고 있다. 문학과 기타 예술을 구별하는 큰 차이점은 언어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를 다루는 치료방법이라는 차원에서 글쓰기나 읽기의 특성으로 나눈 각각의 치료갈래를 '문학치료'라는 한 범주로 묶어서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문학치료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문학치료의 이론을 체계화시켜 온 연구이며, 둘째 문학작품들의 문학치료적인 의의를 밝히려는 연구, 셋째 임상현장에서 문학작품을 통한 문학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 연구 등이다. 이러한 연구 방향들이 문학치료의 발전에 혁혁한 자리매김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문학치료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문학치료를 우리나라에 도입한지 삼십 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 동안의 행보를 돌아보는 것은 문학치료의 현 위치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문학치료'라는 용어의 첫 사용을 1996년 정운채의 논문 『사회에 나타난 문학의 치료적 효과와 문학치료학을 위한 전망』으로 기점을 삼은 논문[12]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과 세부적인 연관된 치료들을 문학치료의 범주로 크게 엮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문학치료 관련한 첫 논문을 김종주·이경수의 논문 『시치료 과정에서 관찰되는 정신역동에 관한 고찰』이 발표된 시점인 1986년을 기점으로 삼았다.

문학치료에 관련한 이러한 객관적인 관찰자적 시선은 문학치료에 대한 판단 및 파악의 차원을 넘어서 그간의

문학치료적 성과나 고찰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문학치료의 발전 방향까지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본론

### 2.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에 의거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표성이 확보되는 표본을 추출하기도 쉽지 않으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 또한 심각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는 흔히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학치료'라는 용어의 범용적 사용에 따른 결과 일반적으로 문학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 피상적인 답변으로 말미암아 문학치료의 개념 인식의 오류 및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특정한 사회 계층이나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소속 집단 간에 이러한 인식의 착오들이 일어날 경우, 실제로 문학치료에 대한 개념인식의 확충에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조사 집단의 특성 파악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해당하는 집단을 밝히는 것은 연구의 윤리성에 다소 어긋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문학치료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고찰하는 것으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를 통해 문학치료의 객관적인 인지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문학치료에 대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의미정보가 빅데이터에 의해 도출되고 이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문학치료의 현재 인식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과 동시에 향후 문학치료의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와 일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2 연구 방법 및 범위

최근 들어 여러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로 '빅데이터'를 들 수 있다. 빅데이터의 정의는 다양한데, 한 예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수천 테라바

이트(TB)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로 생성과 이용이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시간 단위로 발생하여 기존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데이터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13]. 빅데이터 등장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되면서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그 한 요인이 있다. 비정형 데이터란 문자 메시지, 음성, 영상, 위치 등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질병이나 사회현상의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형성이나 현사회의 인식과 관련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빅데이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이나 기업에까지도 활용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처리와 분석 기법에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그리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등이 있다[14].

본 연구는 '문학치료'에 대한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자료로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여 문학치료가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된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문학치료와 관계된 키워드의 내용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문학치료'를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앞서 열거한 문학치료의 범주 안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독서치료'라는 용어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문학치료' 범주 하나로 고찰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다시 분류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최근 삼십 년간 대중들에게 알려진 문학치료 이름이 전문 학술적 개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독서치료'는 '소셜 매트릭스' 분석 결과로 문학치료와 비교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 조사 기간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30일 동안의 블로그와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자료를 검색대상으로 하였다.

### 2.3 분석 도구

본 연구의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도구는, 다음(Daum) 소프트웨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셜 매트릭스(social metrics: <http://www.some.co.kr>)'

와 코난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분석 서비스인 '펄스 K([www.pulsek.com](http://www.pulsek.com))'이다. '소셜 매트릭스'는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와 블로그 자료를 검색하여 소셜 검색메뉴에 연관키워드 순위, 감성키워드 순위, 주간 급증 키워드 순위를 제공하고, 소셜 인사이트 메뉴에서는 검색 키워드의 연관어를 인물, 단체, 장소, 속성, 상품, 브랜드, 취미·여가, 심리 등으로 구분하여 시각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밖에도 검색어와 관계된 트위터와 블로그의 원문도 함께 제공해 준다. 한편, 트위터와 블로그 외에 페이스북, 인터넷 게시판 및 뉴스 등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문서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소셜 매트릭스 유료버전(<http://www.socialmetrics.co.kr>)'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무료버전에서는 블로그와 트위터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무료버전은 정보원에 포함된 스팸 및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하면서 핵심적인 자연어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가능한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수에 따라 제시해 준다. 또한, 검색결과에 따른 관계어를 실시간 여론에 따라 입체적으로 반영해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분석 도구라 할 수 있다[15]. 한편, 모니터링 분석서비스 '펄스 K'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주는 서비스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검색을 희망하는 키워드를 펄스에 등록하고 분석을 수행하면, 인지도, 호감도, 이슈, 소셜 스코어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 장점은 분석결과를 엑셀자료로도 제공해주며, '보고서 생성'을 클릭하면 소셜 스코어, 소셜 인지도스코어, 소셜 호감도 스코어, 미디어 통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 일간 무료로 제공되는 평가판을 활용하였으며, 검색일자는 2014년 11월 10일이다.

### 2.4 분석 결과

'소셜 매트릭스' 무료버전에서는 삼십 일 동안의 블로그와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자료를 검색하여, 소셜 검색메뉴와 소셜 인사이트 메뉴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치료'와 '독서치료' 키워드로부터 도출된 결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결과를 활용하였다. 흔히 키워

드(Key word)는 ‘연관 키워드’와 ‘감성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연관 키워드’는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연관에 의한 키워드이며, ‘감성 키워드’란,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을 뜻하는 감성에 의한 키워드를 말한다. 다만 명료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관키워드와 감성키워드는 상위 5순위까지만 기술하였다. 한편 ‘필스 K’의 경우는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가 소셜 매트릭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호감도와 소셜 스코어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 1) 문학치료

#### (1) 소셜 매트릭스의 분석 결과

‘소셜 매트릭스’시스템 안에서 단어 호감도에 대한 분류를 다음 세 가지로 구분지어 하고 있다. 즉, ‘긍정’, ‘부정’, ‘중립’이다. <Table 1>을 통해서 볼 때, 문학치료와 관계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의 표현은 ‘다양한’이라는 ‘중립’적인 용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문학치료와 관계된 모든 용어는 모두 ‘심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문학치료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 볼 때, 심리(치료)와 연계되어 검색하고, 회자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문학치료는 심리치료와 관련 있거나 또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검색 횟수에 대해 심리치료를 함께 알아보면, ‘심리치료’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3,743개의 검색 결과가 도출되는데 비하여, ‘문학치료’는 동일기간 동안 16개만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검색 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문학치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정도가 ‘심리치료’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문학치료가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지만, ‘기존의 심리치료’와는 획기적일 정도의 변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The Result of Social Research about 'Literary Therapy'

Number	Relevant Keyword	Sensitivity Keyword
1	diverse	diverse
2	small	small
3	good	good
4	worn out	excellent
5	excellent	worn out

‘심리치료(Psychotherapy)’는 심리적 문제가 있는 대상에게 심리학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 치료 방법으로 심리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치료자가 환자와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대인관계에 대한 사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색하도록 안내하여 다양한 자신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직무를 말한다[16]. 문학치료의 경우 심리치료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심리학적 전문 지식 외에 문학치유적인 전문 지식이나 문학예술성을 치유적으로 끌어내는 전문 능력이 부가되어야 하므로 기존 심리치료 분야와 변별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 단어의 의미는 브리태니커백과사전(<http://www.britannica.co.kr/>)을 활용하여 기술하였음을 먼저 밝혀둔다.

‘문학치료’에 드러난 연관 키워드와 감성 키워드 단어의 의미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순위 일 위로 기록된 ‘다양한’이라는 말은 ‘한 종류에 속하면서도 색깔, 모양, 내용 따위가 전부 다르다’는 뜻이다. ‘작다’는 규모나 범위가 넓거나 크지 않다는 의미로 부피, 넓이 따위가 일정한 기준이나 보통보다 덜한 상태에 있다는 뜻인 반면, 규모는 크지 않으나 중요성은 같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다. ‘좋은’이라는 말은 훌륭하거나 뛰어나다는 의미와 훌륭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 있다는 의미, 어떤 일에 알맞거나 적당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이다. ‘찌들다’는 말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느라고 몹시 시달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동사이다. ‘문학치료’에 대한 검색에서 ‘찌들다’가 등장한 배경을 유추해보면, 보다 경쟁적이고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른 현대 사회의 속성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반면, 여러 제도적 체제적 한계의 상황이나 제한된 환경적인 조건으로 이러한 욕구에 비례하지 못 하는 현실에서 인간의 정서는 찌들 수밖에 없다. 찌든 현실은 정신 병리적 현상의 발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한편, ‘탁월한’이라는 말은 뛰어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비교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이다. ‘문학치료’에 대한 소셜 검색 메뉴의 결과는 특징적으로 연관 키워드와 감성 키워드의 순위가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는 똑 같으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순위가 서로 뒤바뀌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문학치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다양하면서도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은,

그러면서도 찌든(마음을 타파할) 탁월하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펄스 K의 분석 결과

다음은 '소셜 매트릭스'와 함께 동일기간 동안 조사한 '펄스 K'를 통한 분석결과이다. '문학치료'라는 용어로 검색한 횟수는 모두 19건이었다. 이는 '소셜 매트릭스'를 이용한 분석결과인 16건과 유사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학치료'에 대한 호감도는 부정(10.53%)보다는 긍정(57.89%)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셜 매트릭스'의 단어 분류에 관한 결과와 유사하다. '펄스 K'의 또 다른 장점으로 '이슈' 분석을 통하여 검색 키워드가 들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원문을 제공해 줌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입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면이 있지만, 본 연구의 취지와는 벗어날 수 있으므로 원문을 이용한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한편, '문학치료'와의 인접한 치료학 용어 사용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기간 동안 인접한 다른 치료 분야에 대한 검색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예술치료'는 147건, '심리치료'는 3,088건으로 동일 기간 동안 검색한 '문학치료'의 횟수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서치료

<Table 2>를 통해서 볼 때, 독서치료와 관계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의 표현 또한 '다양한'이라는 '중립'적인 용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 독서치료와 관계된 모든 용어는 '속성'으로 분류된 용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문학치료'의 연관어가 '심리'라는 점과 비교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서치료'의 경우는 '긍정'적인 용어가 대다수인 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학치료'에서는 긍정 6, 중립 2, 부정 2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일기간 동안 '독서치료'와 관계된 검색어는 83개로 문학치료에 비하여 거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독서치료'라는 용어가 현재 '문학치료'보다 일반화 되어 있으며, 대중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 연구가 문학치료에 비해 훨씬 앞서서 이뤄졌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치료 연구가 김종주·이경수의 논문이 발표된 시점인 1986년을 기점으로 이뤄진 것에 비해 1964년 유중희는 헤닝거(Hannigan)의 책을 『도서관과 비부리오세라피』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소개한 바 있으며, 1968년 김병수가 처음으로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또 다른 의미로써는 독서치료가 대중화 되고 보편화된 반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문학치료가 전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으로서의 파악은 아직 무리한 면이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접 치료의 비교를 위해 동일기간 동안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음악치료'라는 용어에서는 416건, '미술치료'라는 용어에서는 852건이 검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학치료' 혹은 '독서치료'에 대한 일반 대중적인 지평의 확산 및 인식도의 향상이 절실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치료'에 드러난 연관 키워드와 감성 키워드에 나타난 단어의 의미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 순위인 '다양한'은 앞서 '문학치료'의 일 순위와 같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이라는 말은 '한 종류에 속하면서도 색깔, 모양, 내용 따위가 전부 다르다'는 뜻이다. 연관 키워드의 두 번째는 '책'으로, 책을 읽는 행위가 '독서'이므로 책과 연관 지어 검색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관 키워드의 세 번째인 '프로그램'은 '행사의 진행 계획이나 순서, 또는 그 목록'을 뜻하는 명사이다. 독서치료를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이들의 경우 사실상 치료프로그램으로 구조화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관 키워드의 네 번째는 특히 '미술'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건대, 미술(치료)와 연계되어 독서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면, 2014년 7월 16일 수원뉴스에서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독서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독서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기사가 있다. 또한, 같은 일자의 국제뉴스를 보면, 유아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미술 심리치료강좌'를 경기도 연천군에서 개최한다는 기사가 있다. '독서치료' 연관 키워드의

다섯 번째 순위로 ‘학교’가 등장하고 있는 면에서 볼 때, 독서치료가 정착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가 학교이거나 혹은 학교와 연관되어 개최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감성 키워드에서 두 번째 순위인 ‘건강한’이라는 단어는 ‘(몸에 아무런 탈이 없이) 튼튼하다.’ 혹은 ‘(의식이나 사상이) 바르고 건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독서치료가 지향하는 방향성과도 일치하면서, 독서치료의 효과가 그러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해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성 키워드의 세 번째인 ‘추천하다’는 말은 ‘어떠한 일이나 조건에 적합하거나 우수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하다.’는 뜻의 동사이다. 독서치료가 주로 추천하거나 추천받음으로써 이뤄지거나 또한, 독서치료를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성 키워드의 네 번째로 ‘좋아하다’는 말은 ‘(무엇에 대하여) 마음이 기울거나 쏠리다. 호의를 가지다. (무엇을) 즐기는 취미가 있다.’는 뜻을 지닌 동사이다. 문학치료의 경우 연관과 감성 키워드의 세 번째 순위가 똑같이 ‘좋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형용사로 다소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독서치료의 경우 실제로 좋아하는 동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독서치료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은 이들이 접하고 실제로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성키워드의 다섯 번째는 ‘도움 되다’이며, 이 말 역시 동사로, ‘남의 어려움에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독서치료를 직접 경험한 이들은 실제로 좋아하게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더라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Table 2> The Result of Social Research about 'bibliotherapy Therapy'

Number	Relevant Keyword	Sensitivity Keyword
1	diverse	diverse
2	book	healthy
3	program	recommend
4	art	like
5	school	helpful

### 3. 결론

‘문학치료’와 연관된 키워드를 중점으로 해서 ‘독서치

료’와 함께 내용 분석한 앞서의 결과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문학치료 인식의 지평에 대한 성격이다. 독서치료는 도서관이나 학교를 통해 널리 확산된 이후, 주로 청소년이나 유아층 등의 성장기에 속한 연령층에게 적용·활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실제로 경험하여 강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문학치료는 특정 대상이나 연령층에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보기 보다는 다양한 계층에 적용하고 활용하여 왔으나 직접 문학치료를 행한 대상이나 체험의 정도가 현재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두 번째, 문학치료 인식의 지형도에 대한 구조이다. 독서치료가 주로 미술과 관련되어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 드러난 단어의 속성으로 유추해 보건대, 건강한 대상을 더 건강하게하기 위한 일종의 정신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문학치료는 ‘심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보다 핵심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치료의 탁월성에 의한 정신·심리치료적인 요구 및 기대는 사실 ‘문학’의 치유성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강렬한 시대적 갈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문학치료 인식의 축이다. 그동안 독서치료가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서 추천을 하고 싶거나 추천을 받아서 접근하거나 체험하게 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문학치료의 경우 탁월하고 치료 전문적인 ‘그 무엇’이 있을 법하나, ‘그 무엇’을 직접 체험하거나 그러한 경험에 의한 추천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현재의 시점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탁월하면서도 좋은 치료법일 것 같으나 실제로 경험해서 일궈내어 치료적인 효과를 만끽하고 이를 추천하거나 퍼뜨리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독서치료의 경우 ‘책’을 통한 치유적인 접근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방법에 의거하고 있는 반면, 문학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경우 접근의 다변화와 더불어 치료의 특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모호함마저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독서치료’가 ‘문학치료’라는 큰

범주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치료가 독립적이고, 분리적인 성향으로 존재해오거나 대중들한테 널리 체험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에서 유추해볼 때, 독서치료의 대중적이고 일반화된 현재의 인식도와 문학치료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알맞게 잘 조화를 이뤄서 어우러진다면, 보다 더 괄목할 만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빅 데이터의 분석으로 볼 때, 문학치료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첫째, 문학치료 지평의 확산이다. 현재 문학치료의 각 갈래 중에서 독서치료가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료사의 배양에 대한 시기적인 차이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홍보차원으로 인한 인식의 확산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 효율적인 접근으로 치료 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통해 직접 문학치료를 체험한 이들을 통해 번져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지평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학치료의 효과는 연구 논문으로 공식 발표되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치료효과를 체험한 이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인근 라미라다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여성은 간질발작을 시로 극복한 적이 있었으며, 이 사례는 학계 사례발표가 아니라 2006년 7월 12일 기호일보 기사내용으로 알려진 바 있다. 따라서 자질과 소양을 충분히 갖춘 전문적인 문학치료사들은 문학치료의 연구개발과 발전으로 괄목할만한 치료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담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러한 치료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문학치료 지형의 구조적 조화이다. 이 말은 문학치료 대상자의 접근방식이 보다 치료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문학치료가 문학교육, 문학강의, 문학창작, 문학행사 등과 같은 맥락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보다 치유적인 기술과 기법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신·심리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바탕 위에 내담자를 다루는 문학치료적인 기술과 기법이 더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한 문학치료 학문의 습득과 함께 다양한 사례가 있는 임상 현장에서 직접 과고 들어 체화하고, 치료 효율적인 기법과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학치료 인식의 촉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통합의 시대[17]이다. 시대적 대세에 맞추어서 문학예술 치료분야에서도 통합의 새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문학치료 분야에서도 ‘통합문학치료학회’가 발족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통합문학치료에서 표방하는 문학치료(Poesie-und Bibliothherapie)가 창의적인 인간학, 게슈탈트 이론, 정신분석학, 몸의 현상학, 기억이론, 그리고 최근의 뇌 과학 등을 통합적으로 수용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심상 시치료(Simsang-Poetry Therapy)’의 경우 다분히 동양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심상 시치료의 정적 활동에서는 진행상 ‘명상’이 필수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이끌고 나서 행하는 내면과의 대화로 자각과 각성의 단계까지 경험할 수 있어 핵심적으로 통찰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약 시가 그대를 명상으로 이끌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시가 아니다. 그것은 숨겨 있는 낱말로 구성되었을 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사상도 들어있지 않다. 그대는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한 모든 법칙을 알고 있는 훌륭한 언어학자, 작가, 문법학자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대는 시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심의 가장 깊은 핵심은 명상이기 때문이다[18].” 이처럼 심상 시치료는 인간의 고유한 오감과 초감각의 영역까지 아울러서 육체와 정신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는 점과 음양을 비롯한 우주의 기운과 인간의 영혼 및 정신을 연결 지어 통합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문학치료의 통합적인 차원을 한층 더 확산시키고 심층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의 시도가 이론적이고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와 그 성과물의 집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인 문학치료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은 ‘소셜 매트릭스’와 ‘필스 K’에서 제공하는 30일 동안의 검색결과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일반화하여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분석과 함께 내려진 판단은 주관성을 내재하고 있음에 따라 분석결과의 객관성이나 정확성의 판단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19].



그러나 문학치료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지도를 탐색하고 이에 관련한 문학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일찍이 감정을 치료하는 데 있어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언급했으며, 통찰과 우주적 진리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시의 가치를 언급하기도 했다[20]. 또한 책을 읽는 동안 생긴 정서는 자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통합시켜 준다[21]. 문학치료는 사실상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의 힘은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 목적을 이룬다[22].”라고 한 파울로 코엘로(Paulo Coelho)는 헨리 드루먼드(Henry Drummond)의 다음 말을 인용하고 있다.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의지의 힘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문학의 치유성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발현과 구현을 거쳐서 실현하게 되는 하나의 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의 과정’에 담겨질 보다 구체적인 행로를 닦는 것은 향후 문학치료를 접하고 가다듬으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하는 연구자들의 몫이다.

## REFERENCES

- [1] Kim, J. J., Lee, G. S., (1986). Consideration about psychodynamics observed in the process of poetry therapy, *Won-Gwang Medical Therapy*, 2(2), 3-17.
- [2] Park, T. J. (2010). Study of journal writing relating to self-therapy and resuming self-identity for teenagers, *Korean Writing Studies*, 11, 9-44.
- [3] Lee, B. H. (2007). *Writing Therapy*, Hak ji sa, Seoul.
- [4] Kwon, S. (2010). *Theory and Practice of Poetry Therapy*, Sigma press, Seoul.
- [5] Shrodes, C. (1949). *Bibliotherapy: A Theoretical and Clinical Experiment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6] Kim, H., Kang, E., Park, S. (2005). *Theory and Practice of Poetry Therapy*, Hak ji sa, Seoul.
- [7] Kim, H., Seo, J., Kim, S., Kim, J., Kang, E. (2004). *Bibliotherapy*, Hak ji sa, Seoul.
- [8] Chae, Y. S., Cho, H. J. (2014). Overview of present development of integrative poesis- und bibliotherapy and its vision, *Journal of Literary Therapy*, 31, 189-213.
- [9] Woo, J. M. (2008). Catharsis, healing of novels and oriental neuropsychiatry: On Ian McEwan’s *Atonement*, *English & American Cultural Studies*, 8(2), 139-166.
- [10] Byun, H. S. (2009). *Literary Therapy*, Hak ji sa, Seoul.
- [11] Park, J. H. (2013). *Looking for Light in Mind-Theory and Practice of Simsang-Poetry Therapy*, Hak ji sa, Seoul.
- [12] Na, J. Y. (2009). The present state and the future prospect of the theoretical study on literary therapeutics, *Journal of Literary Therapy*, 10, 131-167.
- [13] Ham, Y., Che, S. (2012). *Big Data Changes Managemen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oul.
- [14] Kang, M. M., Kim, S. R., Park, S. M. (2012). Analysis and utilization of big data,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 30(6), 25-32.
- [15] Lee, Y. J., Yoon, J. H. (2014). A study on utilizing SNS big data in the tourism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3), 5-14.
- [16] Lee, J. H. (2002). *Psychoanalysis Terminology Dictionar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psychotherapy, Seoul.
- [17] Park, S. I. (2006). *Promoting Strategy of Korea, 21century books*, Seoul.
- [18] Gil, Y., (1985). *Zen*, Chung ha, Seoul.
- [19] Lee, J. M. (2013). *Understanding Big Data and Utilizing its Analysis in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Korea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53-73.
- [20] Weller, P., Golden, L. G. (1993).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21] Hynes, A. M. (1990). Possibilities for biblio/poetry therapy services in library world, *Catholic Library World*, 61(6), 264-267.
- [22] Park, G. H., (2008) *Like flowing river*, Munhak dongne, Seoul.

최 경 호(Choi, Kyoung Ho)



- 1985년 2월 : 전북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이학사)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이학박사)
- 1993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기초의과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통계조사, 사회연결망분석, 데이터 테크놀로지

· E-Mail : ckh414@jj.ac.kr

박 정 혜(Park, Jeong Hye)



- 2009년 2월 :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학사)
- 2011년 8월 : 경북대학교 문학치료학과 (문학치료학석사)
- 2014년 2월 : 경북대학교 문학치료학과 수료(문학치료학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전주대학교 독서치료과목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심상 시치료, 문학치료

· E-Mail : duadnjs2005@hanmail.net